

광주 출신 한강, 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

한림원 “역사적 트라우마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 드러낸 시적 산문”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수상...5·18 다룬 ‘소년이 온다’ 등 발표
장흥출신 소설가 한승원 딸 ... 한국 최초 부녀 ‘이상문학상’ 수상도

광주 출신 한강 작가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벨문학상에 한국 작가가 수상한 것은 처음으로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성큼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타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간) 2024 노벨문학상에 한강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림원은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강의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은 아시아 작가로는 중국 모옌 이후 12년만이며 여성 수상자로는 18번째다.

소설가 한승원 씨의 딸인 한강 작가는 탄탄한 문학적 성숙을 인정받아 일찍이 한국 문단의 차세대 주역으로 꼽혀 왔다.

특히 그의 소설은 치밀한 구성, 섬세한 감수성, 울림 있는 주제의식이 절묘하게 교직돼 있어 독특한 아우라를 발한다. 문단 안팎에서는 장인정신에 근거한 글쓰기가 한강을 차세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는 평가다.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은 시 같은 산문으로 상처입은 인물들의 내면을 아름답게 그린 작품이다.

2016년 세계 3대 문학상을 꼽히는 맨부커상을 수상했던 ‘채식주의자’는 폭력적인 삶을 거부하기 위해 육식을 단절하고, 그로 인해 점차 죽음에 다가가는 한 여성을 그리고 있다.

한 작가는 수상 당시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폭력과 인간 존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는 유사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상작 ‘채식주의자’는 초현실주의 작품으로, 폭력적이고 관능적인 일면을 서정적이면서도 환상적으로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다.

영어권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맨부커상은 노



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린다. 영어권 출판업자들의 추천을 받은 소설을 대상으로 평론가, 작가, 학자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에서 수상작을 결정한다.

한강의 또 다른 작품 ‘소년이 온다’는 광주 5·18의 참상을 다룬 소설이다. 작품은 5·18 당시 시위대 속에 있었던 친구의 시신을 찾는 한 소년의 이야기다. 폭력적인 집압을 핵심사건으로 서사가 전개되지만 이후 펼쳐지는 저항과 고문 등도 현장감 있게 다뤄진다. 한 작가는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와 밀도 있는 문장으로 ‘현장감’을 절절하면서도 아름답게 풀어낸다.

한강 작가는 당시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작품을 썼다기보다 소설 속 주인공인 소년과 80년 광주를 체험했던 시민들이 작품을 썼다고 본다. 글을 쓰는 동안 저의 삶을 온전히 그분들께 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는 열세 살 때 아버지(소설가 한승원)가 보여준 사진첩이 계기가 됐다”며 “그 사진첩에는 80년 5월 광주에서 학살된 이들의 참혹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이 온다’는 80년 광주의 이야기이지만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한정할 수 없다”면서 “인간 존엄에 대한 보편적 이면서도 근원적인 질문과 사유를 던져준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18을 다룬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로 2014년 만해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오른쪽)작가와 아버지 한승원 작가.

영광군수 재선거 혁신·진보당 약진 민주 이재명 대표 ‘1박 2일’ 총력전

5일 앞으로 다가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막판 선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혁신당과 진보당이 ‘호남은 민주당 텃밭’이라는 인식을 깨고 초박빙 3파전 구도 굳히기에 성공하자, 이례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민주당 등 3당 대표들이 총출동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부터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영광군청 사거리 주변 상가 등을 찾아 장세일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9일 오후 영광에 도착한 이 대표는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며 ‘땃밭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타 후보를 앞서는 등 약진했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영광 텃밭 지키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이 대표도 이날 여론조사 결과를 의식한 듯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라며 “군수 혼자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 법 개정도 해야 하고 예산도 받아야 하고 전남도 지원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가능하겠느냐”라며 민주당 장세일 후보의 지지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장 후보와 영광군노인복지관에서

장년층 대상 배식 봉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날 장현 후보와 영광 집중 유세에 나서며 선거 경쟁에 가세했다. 조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국정감사 등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영광으로 이동해 표밭 다지기에 집중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역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힘입어 이석하 후보 선거운동에 올인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노인대학, 보훈회관,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혁신당과 진보당 사이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선거에서까지 패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받게 될 부정적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는 마지막까지도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고졸 조대부고 2024 조대부고인
총동창회 어울림 한마당

- 일시 : 2024. 10. 20(일) 09:30
- 장소 : 모교운동장
-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봉규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